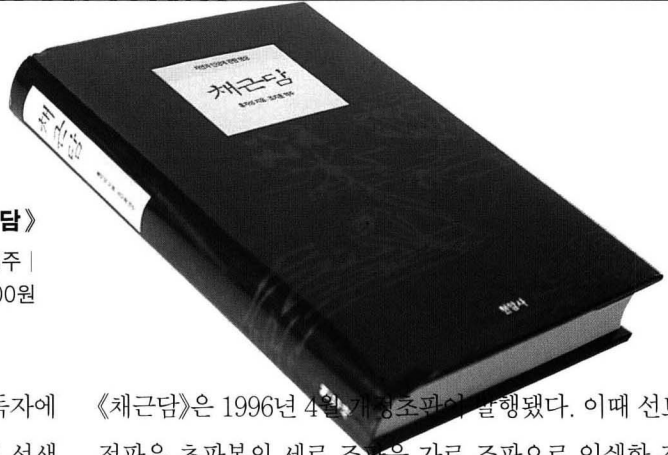


# 나물 뿌리처럼 천천히 제 맛을 드러내는 책

## 《채근담》

홍자성 지음 | 조지훈 역주 |  
현암사 | 416쪽 | 값 12,000원



이본(異本)만 40종이 넘게 나와 있는 《채근담》이 한국의 독자에게 처음 선을 보인 것은 1962년, 현암사가 시인 조지훈 선생(1920~1968)의 역주본을 출간하면서부터이다.

수양과 수신, 처세의 경구들을 담고 있는 《채근담》은 그로부터 꼬박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꾸준하게 읽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가 되었다. 이본을 포함 매년 10,000부 가까이 팔린다고 하니 이 고전의 영묘한 강기를 짐작할 만하다. 사실 지금처럼 위축되어 있는 출판시장에서 신간 10,000부를 파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초판본에 쓴 '머리말'에 의하면 조지훈 선생이 이 책을 처음 읽은 것은 열일곱 살 때라고 한다. 그때는 이 책의 진미를 미처 알지 못했다고 선생은 고백한다. 이후 스물두 살 때 두 번째로 이 책을 읽게 되면서 선생은 채근담을 통하여 느끼는 '둔세(遁世)의 맛과 자적(自適)의 맛이 슬픈 마음을 위로하는 정다운 벗이 된다는 것'을 체득한다. 채근이라는 말이 가리키듯 이 책은 나물 뿌리를 씹는 맛과 같은 담담한 매력을 그 속에 간직하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의미와 맛을 발견하게 해주는 책이다. 권말(卷末)에 실린 해제를 보면 '채근담'이란 책명의 출처가 송대 유학자 왕신민의 '사람이 나물 뿌리를 씹어 먹을 수 있으면 곧 백 가지 일을 가히 이루리라'는 말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조지훈 선생은 이를 '사람이 일상에서 초근목피와 같은 소식을 달게 여겨 그 담담한 맛에서 참맛을 느끼고 모든 일을 참고 견디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채근담》의 저자 홍자성은 중국 명나라 사람이라는 것 이외에는 생존연대와 직업 등 생애의 이력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채근담》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그의 사상은 유교를 근본으로 하면서 노장(老莊)과 불교의 사상까지 융화한 깊고 융성한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 무명소설의 저서가 40년 동안 꾸준하게 읽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채근담》은 우리 출판 역사의 한 사건으로 놓이기에 충분하다.

1962년 현암신서로 묶여 처음 독자들에게 선보였던

《채근담》은 1996년 4월 개정판이 발행됐다. 이때 선보인 개정판은 초판본의 세로 조판을 가로 조판으로 인쇄한 것 이외에도 판형과 장정이 모두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뀌었다. 하지만 단아한 표지 디자인에서는 고전 특유의 클래식한 분위기가 살아 있다. 이 개정판은 이후 현재까지 13쇄를 찍고 있다. 조지훈 역주 《채근담》은 1996년 나남출판사에서 조지훈 전집을 발간하면서 그 목록의 일권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원전으로서의 《채근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명나라 사람 홍자성이 지은 전 359장(전집 225장, 후집 134장)으로 이루어진 것과, 청나라의 건륭연간에 홍응명이 지은 전 383장(수성 38장, 응수 51장, 평의 48장, 환적 48장, 개론 198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채근담》의 대부분은 조지훈 역주본과 마찬가지로 홍자성의 것이다.

《채근담》은 촌철살인의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하나하나가 시적 은유와 대구법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어 옛스런 품격을 자아낸다. 《채근담》이 아우르고 있는 세계는 매우 방대하고도 풍부하고, 그 내용은 속세의 세태와 풍속을 거의 아우르고 있다. 조지훈 선생의 지적처럼 아픈 사람들에게 적실한 약이 되어주는 응병시약(應病施藥)으로서의 《채근담》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인간성이 황폐화되고 도덕과 윤리의 구심이 와해된 현대인의 마음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면서 위무한다. 끝으로 《채근담》의 한 구절을 인용하기로 한다. **한글**

김도연 기자

악한 일을 하면서도  
남이 알까 두려워하면  
그 악 속에 오히려 선의 길이 있고,  
착한 일을 하면서도  
남이 알아주기를 성급히 바라면  
그 선 속에 악의 뿌리가 있다.

爲惡而畏人知  
惡中猶有善路、  
爲善而急人知  
善處 卽是惡根。